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학원  
5% 할인  
학원 입금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 입금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입금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S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S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광역시체육회  
2024. 11 Vol. 72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2**  
2024. 11



부산체육 꿈나무  
대신중학교 육상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스타  
- 성적우수 기여자 소개

Sports is Busan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소개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11 Vol. 72



발행일 2024년 11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중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호민디앤피



※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B BUSAN HEROES

04  
부산체육 꿈나무  
대신중학교 육상부

08  
부산체육 발자취  
2020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12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스타  
- 성적우수 기여자 소개

### S SPORTS SERVICE

20  
Sports is Busan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소개

24  
스포츠 파노라마  
세계 스포츠계에 부는  
ESG 경영의 열풍

28  
공공스포츠클럽 소개  
부산탁구스포츠클럽

### G GOOD LIFE

30  
스포츠 라이프  
서부산철인클럽

34  
스포츠 기고·부산스포츠 기자단  
-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개최  
- 가을에 '부산유남규탁구체육관'에서  
탁구 어떠세요?

38  
스포츠 PLUS+  
세팍타크로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농구 좋아하세요?  
- 손대범

### S FOR SPORTS CITY

46  
BSC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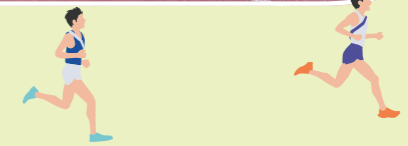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트랙을 질주하며 만끽하는 자유 대신중학교 육상부

누구든 내달리는 것만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에 육상은 만국 공통 대중 스포츠다.  
누구보다 자유롭게 트랙을 질주하는 대신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 12명의 선수, 각자의 지도법

육상은 모든 체육 활동의 기본이자 응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일견 비슷하지만 종목마다 요구하는 운동능력과 훈련 방법이 다르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에 알맞은 과학적 지도가 필요한 종목이기에 지도자 역량이 중요하다.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다 2017년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오대중 지도자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실업팀 선수로도 활동을 했지만, 주력했던 종목 외의 종목은 공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선수들도 지도할 수 있으니, 육상 전반적인 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노력 덕분일까, 대신중학교 육상부는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1학년 이건호 선수가 100m 신기록을 경신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건호 선수가 100m 종목에서 10초 97을 기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이 11초의 벽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터라 저는 물론이고 선수 본인이 가장 놀라더라고요. 운동능력을 타고난 데다 훈련도 열심히 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건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자극받은 덕분에 곧 육상부 전체가 기록 단축을 경험할 거라 기대합니다.”



## 최근 수상이력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100m - 1위(이건호) 200m - 2위(이건호)  
장대높이뛰기 - 2위(김동환), 3위(민권홍)

2024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소년체육대회  
100m - 1위(이건호), 2위(김동환) 400m - 2위(우수호) 800m - 2위(진시후)  
멀리뛰기 - 1위(장정근), 2위(이재은), 3위(김도영)

대신중학교 육상부가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오대중 지도자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건 상호 존중과 예의를 아는 덕분입니다.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따르면서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어요. 특히 주장인 영욱이가 후배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육상 부분만 아니라 김정원 부감 선생님이 지도하는 다른 운동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 간 사이가 좋으니 훈련이 즐겁고, 훈련이 즐거우니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활발한 체육활동 덕에 오대중 지도자와 김정원 부감은 미소를 지었지만, 나름의 고민도 있다고.

“우리 학교 체육부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로 움직이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선 많은 인원을 전지훈련이나 타 지역 합동 훈련에 참여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분이 많아서, 곧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오대중 지도자의 설명에 더해 김정원 부감은 육상부를 비롯한 대신중학교 특유의 체육활동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대신중학교는 육상 외에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발표되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에서 체육활동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체육교사인 저는 기분 좋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육상부 부감이자 대신중학교 체육교사로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선수 Interview



이영욱 선수

육상을 시작한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훈련해서 100m 기록을 10초대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대신중학교에서 운동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상하신 지도자님과 부감 선생님이 지도 잘해주셔서 졸업하기 전에 KBS 전국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고, 가족들은 먼 곳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함께해 응원해줬습니다. 동생인 이건호 선수와 트랙 위에서는 경쟁자이자 동료로 지내면서 형제간 우애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장인 저를 믿고 잘 따라준 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이건호 선수

초등학교 3학년 때 서구 챌린지 대회에서 처음 상을 탄 이후로 육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고 또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도자님, 부감 선생님 다들 친절하시고 지도도 잘해주신 덕분에 실력이 나날이 느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1학년 부 신기록을 세웠는데, 자만하지 않고 더 좋은 기록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늘 함께 가서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고 특히 같이 운동하는 형(이영욱)에게 고맙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형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정민서 선수

육상은 저에게 꿈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는 걸 좋아했는데, 대신중학교 육상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육상을 좋아하는 만큼 기록 욕심도 있는데, 기록 단축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훈련이 끝나도 집 근처 운동장에 나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선수가 최근 좋은 기록을 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육상부원 전부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기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육상부 전원이다 같이 노력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중학교 육상부 화이팅!

Mini interview

김은수 교장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는 1990년도 창단하여 지금까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훈련을 위한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학교와는 달리 도약, 단거리, 중장거리, 투척 등 다양한 종목을 오대중 지도자 선생님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선수와 소통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시 체육회에서 학생들 장비, 훈련비 등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전국 대회에서 매년 입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충분히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며, 국가대표 선수로도 진출하는 스포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글. 원성만

2020년은 우리나라의 첫 민선 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취임한 해이다.

1월 16일,  
제26대(통합3대)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 취임했다.

## 부산체육 발자취

### 첫 민선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 취임

장인화 첫 민선 체육회장은 부산육상연맹 부회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 협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부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과 지역에서 체육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9년 12월 27일 치러진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장인화 회장은 78.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인화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비용 6억 5000만 원이 절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장년층이 건강하면 그만큼 의료비용이 줄어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부산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 노인이 되기 직전 연령대인 50~60대 중장년층의 건강 지원을 확대해서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020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열렸다. 우리 부산시는 스키, 빙상, 컬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 종목과 산악 1개 시범 종목 등 6개 종목에 247명(선수 214명, 임원 33명)이 참가해 금 3개, 은 6개, 동 12개를 획득했다. 이는 2019년 종합 5위에 이은 14년 연속 종합 5위의 성적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체육계도 위기를 맞았다. 국내 스포츠 일정이 ‘울스톱된 것이다’.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개최 예정이던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0.5.30.~2020.6.2. 서울특별시 일원)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2020.10.8.~2020.10.14.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열리지 못했다.

당초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한 차례 잠정 연기되었으나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2020년에는 전국 규모의 종합체육대회가 모두 열리지 못했고, 전국체육대회가 연기되면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도 모두 1년 씩 순연됐다.

이는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포츠 행사의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감염은 물론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방역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와 체육계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우수인재 양성으로 부산체육 내실 다져**

2020년은 부산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들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중지된 암울한 해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남미까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국경을 닫음으로써 각종 국제 대회와 스포츠 교류도 중단되었다.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2020 도쿄올림픽까지 연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체육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부산 체육 역량과 내실 강화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 확보에 적극 힘쓰는 시간을 가졌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도자 지원, 부산지역 실업팀 훈련비 지원 등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해였다.

이에 힘입어 6월 12일에는 부산여자고등학교가 카누부를 창단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열악 종목으로 치부되던 고교 카누부의 창단은 학교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부산시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한편 장인화 회장은 취임과 함께 2월 27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와 부산체육 발전과 체육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 체결로 부산시체



육회와 동의과학대학교는 학생 현장 실습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두 기관의 실무자 간 기술교류와 공동 연구 활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전문 체육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스포츠 재활센터 이용 지원 등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부산 체육계의 다양한 노력**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산에도 8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집합·행사가 금지됐다. 이전에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인원에 상관없이 행사를 열 수 있었지만, 모든 생활체육 대회와 프로그램이 중지되거나 위축되었다.

꾸준한 체육활동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부산시체육회는 구·군의 생활체육관과 각종 강좌 장소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라는 책임감으로 양질의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위한 비대면 지도 활동을 담은 동영상 제작해서 각 구·군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SNS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편한 곳에서 홈 트레이닝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체육회는 이미 4월에 체육회 관계자와 관계단체 등이 모금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8,210만 원을 장인화 회장이 부산시에 전달했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지역 피해 주민들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체육인 인권 강화에도 적극 노력했다. 부산시체육회는 7월 16일, 부산시체육회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실업팀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행사에서 성폭력, 횡령, 승부조작, 조직사유화 등 이른바 스포츠 4대 악 척결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윈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선수에게 가하는 폭력과 폭언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영구 퇴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전하고 공정한 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산시 체육계의 자정 노력이었다.

또 12월 21일에는 부산시체육회가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 교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두 단체는 이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서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선수 기량 향상과 부산체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부산시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단의 사회적 참여 증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코로나19 위기 슬기롭게 극복하며 중단 없는 전진**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부산 체육계는 코로나19로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한 해 동안 부산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0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마저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초유의 상황이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종 대회와 경기가 연기, 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각종 생활체육과 감습이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부산시체육회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적극 대응해 부산시민과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우수 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해로 승화시켰다.



대한체육회 제공

## 부산, 8년 만에 종합 6위 쾌거!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펼쳐진 제105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목표였던 종합 7위를 넘어 종합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 체전을 뜨겁게 달군 신기록의 향연

이번 체전에서는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며 역대급 기록이 쏟아졌다. 대한체육회 집계 결과,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 1개, 세계 타이기록 1개, 한국 신기록 16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등 무려 192개의 신기록이 기록됐다.

특히 신명준(23·경기도청)은 지난 12일 대구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핀수영 남자 일반부 호흡 잠영 100m 종목에서 30초97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 달성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21·한국체대)도 60m 종목에서 세계 타이기록인 355점을 기록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신기록이 쏟아진 배경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출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참여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어 기록 경신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 역시 지난해보다 37명이 늘었다. 수영의 황선우(21·강원특별자치도), 체조의 신솔이(20·강원도체육회) 등 2명이 5관왕에 올랐으며, 총 206명의 선수가 다관왕에 이름을 올리며 대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 부산 선수단의 빛나는 활약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총 49개 종목에 참가해 18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금메달 54개를 획득하며 2016년 충남 대회 이후 8년 만에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6대 광역시 중 2년 연속 1위를 지키게 되었다.



부산 선수단은 배드민턴, 요트, 에어로빅힙합, 세팍타크로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들 종목에서의 활약 덕분에 종합 6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메달이 쏟아진 육상(5개), 에어로빅힙합(5개), 레슬링(5개), 핀수영(4개)도 부산의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이 밖에도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복싱, 다이빙, 골프에서 각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 순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부산 선수단 중 12명이 이번 대회의 다관왕에 올랐다. 역도의 김수현과 핀수영의 서의진은 3관왕을, 배드민턴, 다이빙, 에어로빅힙합, 골프 등 다수 종목에서 선수들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체육시설에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우리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같은 성과는 시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산 체육의 새로운 전환점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 다양한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팍타크로에서는 7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세팍타크로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부산체고는 2년 연속 전국체전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체전 역사상 같은 학교가 동일 종목 단체전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석권한 첫 사례가 되었다.

동명대 축구부는 남자대학부 8강전에서 중원대를 이기며, 창단 후 처음 참가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하여 동메달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체육회는 남자대학부 축구 대회에서 무려 21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부산과학기술대 야구부는 창원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영남대를 8-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창단 4년 만에 전국체전에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과기대는 매년 프로구단에 졸업생들을 입단시키며 대학 야구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테니스에서는 13일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개인 복식 경기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김만열과 이도근이 우승하며, 무려 39년 만에 부산에 소프트테니스 금메달을 안겼다.

골프 종목에서는 학산여고 성아진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 동반 우승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 성화의 불꽃, 부산으로

7일간의 열띤 경기를 마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폐막식은 선수단과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 시상, 폐회상, 대회기 전달, 성화 소화,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화대 공간을 활용한 독특하고 입체적인 무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전략 기지인 경남의 미래 비전을 담아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송사에서 "모든 경기 한순간 한순간이 선수와 관람객, 국민이 함께 울고 웃는 감동의 드라마

였다"며 "반목과 갈등, 분열이 만든 단단한 벽을 허무는 화합과 존중의 한마당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선수단을 향해 "후회 없는 승부의 시간이었길 바라며, 경남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모두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이어 박 지사는 전국체전 대회기를 차기 개최지인 부산시 김광희 미래혁신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성화 소화 공연에서는 '미래를 향한 한희'라는 주제로, 밴드 곡에 맞춰 등장한 무용수들이 각 종목의 인상 깊은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7일간의 선수들의 열정을 재현했다. 무용수들은 소화된 성화의 빛을 모아 차기 개최지인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체육대회의 연결성을 표현했다.

제106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의 역량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로, 올해의 좋은 기운을 이어서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다

양운고등학교 요트부  
정인권 선수

안녕하세요. 양운고등학교 3학년 정인권입니다. 요트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유도, 골프, 아이스하키 등 여러 운동을 경험해 봤지만, 요트를 만나고 이 길이 제게 가장 잘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문 선수 출신이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하고 싶은 스포츠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어요. 선수들 간 경쟁에 집중하는 다른 스포츠들과 달리, 요트는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부산시의 종합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도자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훈련해온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트는 경기를 치르는 바다 환경도 아주 중요해서, 거제 바다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지훈련을 한 점도 도움이 되었어요. 요트는 바람이 셀수록 더욱 정교한 조작과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인데, 거제가 부산 바다와 비슷한 면이 있어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저 혼자서라면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김정철 부회장님, 이동우 전무님, 양운고등학교 최성한 지도자님과 부산팀 지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인 현우, 재경아 고마워.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선발전에 종목을 바꿔서 출전하느라 살을 거의 15kg을 뺐는데, 아쉽게 3등을 해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상실감이 너무 커서 요트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지도자님의 격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님께서 훈련을 게임처럼 재미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요트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요트를 계속 즐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지만 선수처럼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내년 국가대표팀 선발전에 도전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지만 선수처럼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내년 국가대표팀 선발전에 도전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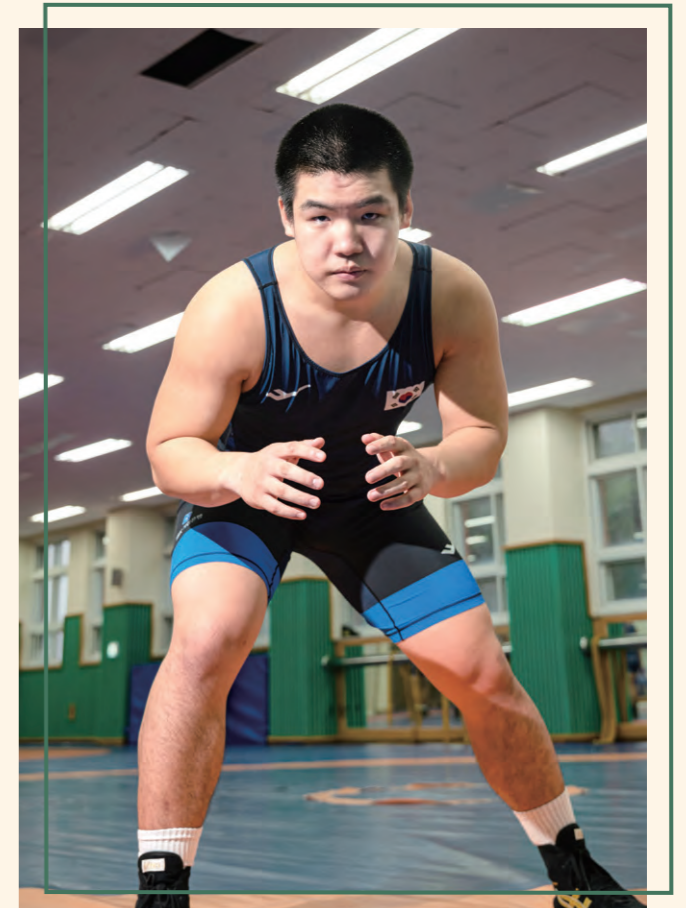
##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만나게 될 유망주

부산체육고등학교 레슬링부  
김동현 선수

안녕하세요. 부산체육고등학교 3학년 김동현입니다. 레슬링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3년 반 정도 되었고, 그 전에는 취미로 주짓수를 배웠습니다. 주짓수 체육관에 다니던 분 중 레슬링부 지도자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제안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레슬링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진로를 고민하던 중이었고,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레슬링 대회에 출전해 1등을 하면서 부산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레슬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전문체육을 하다 보니 운동 강도가 갑자기 높아져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성적은 좋았지만, 몇 번 그만둘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지도자님들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2학년 때부터 제대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지도자님들의 응원이 지금까지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 이재성, 김준형, 이건우 지도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2학년 때 해외 시합에 출전하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유형 금메달,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등 여러 대회에서 메달을 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게 부담이 컸어요. '작년에 잘했는데 이번에 못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회 당일에도 계속 긴장되더라고요. 긴장감을 안은 채 치른 대회였는데, 자유형(97kg)에서 금메달, 그레코로만형(92kg)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내서 다행이고 올해 대회들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레슬링이 더 좋아졌어요. 레슬링 영상만 봐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내년 1월에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선발전 우승을 목표로 훈련 중인데, 먼저 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적우수 기여자

## 500점 이상 상승 종목

### 레슬링

#### 남자고등부 7명

소속	구분	급(kg)	순위	이름
건국고등학교	자유형	53kg급	2위	오혁준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유형	61kg급	2위	이지훈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유형	92kg급	1위	김동현
부산체육고등학교	그레코로만형	55kg급	3위	박재문
부산체육고등학교	그레코로만형	60kg급	3위	강민서
부산체육고등학교	그레코로만형	63kg급	3위	정태양
부산체육고등학교	그레코로만형	97kg급	2위	김동현

#### 남자대학부 7명

소속	구분	급(kg)	순위	이름
동아대학교	자유형	57kg급	1위	임지홍
동아대학교	자유형	61kg급	1위	양준위
동아대학교	자유형	65kg급	3위	최 원
동아대학교	자유형	97kg급	3위	차서현
경성대학교	그레코로만형	67kg급	1위	임도훈
경성대학교	그레코로만형	77kg급	2위	노민기
경성대학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3위	배준화

#### 남자일반부 5명

소속	구분	급(kg)	순위	이름
부산광역시청	자유형	61kg	3위	최인상
부산광역시레슬링협회	자유형	74kg급	2위	이건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레코로만형	60kg	2위	김민우
부산광역시청	그레코로만형	77kg급	1위	이도원
부산광역시청	그레코로만형	82kg급	3위	성 준

#### 여자고등부 1명

소속	구분	급(kg)	순위	이름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유형	55kg급	3위	장원정



### 배드민턴

#### 단체전 5팀

종목	순위	이름
남자고등부	3위	부산동고등학교
남자대학부	3위	동의대학교
남자일반부	2위	삼성생명
여자대학부	1위	부산외국어대학교
여자일반부	1위	삼성생명

#### 개인전 7개조 14명

종목	구분	순위	소속/이름
남자고등부	개인복식	3위	부산동고등학교 김기호, 이보성
남자대학부	개인복식	3위	동의대학교 강태영, 오현호
남자일반부	개인복식	3위	삼성생명 강민혁, 서승재
여자대학부	개인복식	2위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채정, 정유빈
여자일반부	개인복식	1위	삼성생명 이연우, 이유림
대학부	혼합복식	3위	동의대학교 오민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혜진
일반부	혼합복식	3위	삼성생명 김원호, 김혜정

### 조정

#### 남자고등부 9명

종목	순위	소속/이름
쿼드러플스컬	2위	부산체육고등학교 김준서, 이현준, 황세웅, 최우진
무타페어	3위	부산체육고등학교 김상현, 김우성
싱글스컬	3위	부산체육고등학교 전유찬
더블스컬	2위	부산체육고등학교 전유찬, 김준서

#### 남자대학부 2명

종목	순위	소속/이름
더블스컬 (경량급)	2위	한국체육대학교 송재영, 최윤성

#### 여자일반부 4명

종목	순위	소속/이름
무타페어	2위	부산항만공사 조선형, 김하영
더블스컬 (경량급)	3위	부산항만공사 최수진, 이수민

### 축구

소속	순위	이름
남자대학부	3위	동명대학교

## 개인 500점 이상 획득 입상자

### 요트

#### 남자 고등부

종목	순위	소속/이름
국제레이저급	1위	양운고등학교 정인권

#### 남자 일반부

종목	순위	소속/이름
국제레이저급	1위	해운대구청 하지민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소개

## Busan Metropolitan City Sports Park



2008년 7월 25일 부산시 사직동에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이하 부산시체육회관)이 건립됐다. 대지면적 1만 3119㎡ 부지에 설립된 부산시체육회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지하 주차장과 중앙 통제실(지하 1층), 부산 국제 경기대회 기념 전시관 및 자료실을 갖춘 것은 물론 에어로빅장, 헬스장, 실내훈련장도 마련됐다. 6층에는 실내 체육관과 부산시체육회 사무처가 자리하고 있어 부산지역 체육 진흥 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국제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한 각종 국제 경기대회 자료들을 보관·홍보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을 개방하기도 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그 면면을 살펴보자.

### 01

####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은 [1997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 경기대회 개최 기념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150㎡)은 월드컵존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주제로 꾸며졌다. 월드컵 무대 첫 승의 감격과 기적적인 4강 진출의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고 기념주화·메달, 선수 사인볼, 유니폼 등 주요 전시물과 월드컵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제2전시실(140㎡)은 명예의전당으로 부산을 빛낸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부산 출신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메달 입상자에 대한 자료와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어 부산 체육의 오랜 역사를 되짚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제3전시실(190㎡)은 아시안게임실로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한 에피소드와 대회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기념패와 메달 등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실(195㎡)은 아·태장애인경기실로 장애인 체육의 질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각종 전시물과 포토존, 경기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02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보다 넓은 범위에 지원한다.

부산지역 학생 및 일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분야별 연구진이 등속성근관절검사, 운동부하검사, 젖산 분석, 영상분석, 무선근전도검사, 족저압검사 등을 할 수 있는 29종의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운동 능력을 측정·분석하여 지역사회 체육인들에게 과학적 체력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03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스포츠과학센터 부설 스포츠헬스케어센터는 스포츠과학센터의 체력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선수들의 부상회복 관리를 지원한다.

운동중단현상을 최소화해 빠른 재활과 복귀를 도모하고 개인·종목별 맞춤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동기술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

04

**헬스장, 월계관**

회관 내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도 있다. 헬스장은 평일 6시부터 22시,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스미스머신, 트레드밀 등 유산소 운동기구와 부위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30여 개의 웨이트머신 등의 기구가 완비되어있다. 상주하는 트레이너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회원들은 개인별 운동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월계관(月桂館)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농구, 배구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형 체육관이다. 실내 종목 중 가장 넓은 공간이 필요한 핸드볼 경기도 가능하다.

부산지역 운동팀 중 전용 훈련장이 없거나 팀의 규모가 작아 훈련장 마련에 곤란을 겪는 팀들이 훈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배드민턴 교실 훈련장으로도 활용된다.



0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산 체육**

부산체육회관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배드민턴 교실은 선수 출신 전문 강사가 주 2회 레슨을 실시한다. 기초 체력 훈련부터 기술, 전략·전술 강습까지 배드민턴을 즐기는 데 필요한 전반적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린이 농구교실은 매주 토요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 복합적인 운동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팀별 팀원들과 협동하는 운동인 만큼 참여 청소년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 세계 스포츠계에 부는 ESG 경영의 열풍

세계 스포츠계에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러 스포츠 단체와 리그가 ESG 경영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자료 출처 : NBA Cares 공식 홈페이지(cares.nba.com), MLB Together 공식 홈페이지(www.mlb.com/mlb-together),  
'스포츠산업과 ESG: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동향 Vol. 162」



## 외면받았던 ESG 가치, 새롭게 부각되다

지금까지 스포츠계는 궁극적으로 '승리' 또는 '우승'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수많은 기관, 리그, 팀 등이 상호협력하며 노력해왔지만, 승리나 우승 외에 ESG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물론 스포츠가 역사적으로 국민이나 시민의 사회적 통합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생 운동선수 개인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시스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2월 23일 제주 유나이티드(축구), SK나이트(농구), SK호크스, SK슈가글라이더즈(핸드볼) 등 4개 구단 관계자와 대표 선수들이 친환경·지역 사회 공헌·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포츠 ESG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힘을 모은 것은 국내 스포츠계에서도 이제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다.

SK 4개 스포츠 구단은 친환경 유니폼·응원도구·굿즈 사용의 확대,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행사, 1회용 컵 줄이기 위한 'No Plastic 캠페인'을 시행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스포츠계에 ESG 경영을 도입한지 벌써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지원, 의료용품 제공, 교육지원,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친환경 경기장 건설,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및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MLB Together'와 'NBA Cares' 프로그램이다.

◀ MLB의 초등학교 교육시설(Sensory Room) 투자 기부 기념식



▲ 어린 농구 선수들의 훈련에 자원봉사하는 NBA 농구선수들



▲ 군인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NBA 버지니아 유니온스의 선수들



▲ NBA 2024년 사회공헌 활동 백서 표지

### 청소년 농구 지도, 운동용품 기부 줄이어

'NBA Cares'는 NBA의 글로벌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으로, 교육, 청소년 및 가족 개발, 건강 및 웰빙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NBA와 NBA에 소속된 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Hoops for Troops** 군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② **NBA Green**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③ **NBA Math Hoops** 수학 교육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농구를 통해 수학을 배우도록 도움
- ④ **Community Assist Award** 지역 사회에 기여한 선수들을 기리는 상을 제정, 수여.

NBA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헬스케어, 운동, 멘탈 케어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1,600개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너먼트 시즌 또는 최종 결승전이 열리는 도시에서 NBA 선수들은 유소년·유소년 농구 클럽의 어린 선수들 대상으로 훈련을 지도해주거나 연습장 리모델링, 농구 관련 용품 지원 등의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MLB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한 'MLB Together'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더욱 치중하는 ESG 프로그램이다. MLB 선수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즉, 야구를 통해 팬들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MLB Together'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들에게 야구와 소프트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직업 개발을 지원한다.
- ②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③ **가정 및 신체 안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및 인신매매 예방과 생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④ **건강 연구 및 자원** 암 및 루게릭병(ALS)과 같은 질병 연구를 지원한다.
- ⑤ **군 가족 및 재향 군인 지원** 군 가족과 재향 군인들을 위한 자원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재난 구호**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 ⑦ **환경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한다.

이 외에도, 'MLB Together'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ESG 경영은 스포츠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이 더욱더 중시되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앞으로 해외와 같은 ESG 실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 군인 복지에 10만 9천달러(한화 약 1억 2천 5백만 원) 기부한 MLB 투수 배리 지도



▲ MLB 투게더 프로그램에 기부한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투수 살바도르 페레즈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다

## 부산탁구스포츠클럽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손에 꼽는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탁구스포츠클럽.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인원들이 탁구를 즐기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진심이 있었다.



### Q 부산탁구스포츠클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실업팀이 훈련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입니다. 25명의 장애인을 포함하여 약 100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사장님 이하 사무국장, 지도자 2인, 지도자 과정 실습생 2인, 재능기부 지도자 2인이 생활 체육 활성화와 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많이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 지정되면서 2022년부터 여자 선수를 모집, 현재 총 7명의 여성부 회원이 훈련 중입니다.

### Q 부산탁구스포츠클럽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유남규탁구체육관 1층과 2층에서 각각 생활 체육과 엘리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꿈나무(남녀 선수반), 탁구교실, 취미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산탁구스포츠클럽은 선수 육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꿈나무와 프로 선수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같이 탁구를 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탁구대 밖으로 서비스를 보내지 않는 핸디캡 하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탁구를 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 Q 부산탁구스포츠클럽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수업 내용입니다. 보통의 탁구 교실 같은 경우 50분에 15명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3~4분 정도인데, 저희는 1시간 30분 동안 6명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가르치고 배울 게 많아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기초 체력을 올리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회의를 거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수업을 맡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시거나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 Q 부산탁구스포츠클럽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되면 더 나은 조건에서 회원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지도자들의 처우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수들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수반을 잘 운영하여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Mini interview

##### 부산탁구스포츠클럽 유철규 사무국장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되기 위해 선수 육성에 힘쓰며,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 회원분들께서는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타공인 부산 최고 서부산철인클럽



수영, 사이클, 달리기 225.995km를  
돌파하는 동안  
겨울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극한의 극한을 경험하는 극기의 스포츠  
철인3종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 Q. '서부산철인클럽'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클럽은 2006년 초대 양재걸 회장이 결성한 철인3종 전문 클럽입니다.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건강과 불굴의 철인 정신을 함양, 지역 사회 스포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결성 취지를 살려 19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철인3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킹코스 10회 이상 완주자 9명을 보유한,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클럽입니다.

### Q. 올림픽 중계를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이 철인3종을 미디어에서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1978년 하와이에서 해군 소령 존 몰린스와 그의 아내가 대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봅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며 각 종목 전환 구간에서 장비를 교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스프린트, 올림픽, 하프, 킹코스로 나뉘는데 킹코스가 가장 긴 코스입니다.(총225.995km -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달리기 42.195km)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무쇠소녀단'에서 참가하는 대회는 주로 올림픽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발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드래프팅(앞 선수의 뒤에 붙어 바람 저항을 피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 페이스메이커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개인의 기량, 극기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Q. 요즘 젊은 층을 비롯한 생활체육인들 사이에 러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러닝으로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철인3종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경우 이점이 있을까요?**

철인3종은 3종목 마지막 달리기 구간에서의 기록 단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영과 사이클에서 체력을 소진한 상태로 장거리를 달려야 하다보니 기량에 따른 기록 격차가 큼니다. 기존에 달리기를 훈련한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훈련을 조금만 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동호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을 대회가 끝나고 나면 2월까지의 마라톤 등 개별 훈련을 주로 하고, 단체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3월부터는 사이클 훈련이 시작되는데, 우리 클럽은 주로 양산에서 밀양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합니다. 해수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는 바다수영 훈련도 시작합니다. 대회 시즌에는 매주 토요일은 수영과 달리기, 일요일은 사이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클럽은 4050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러닝 인기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30대 회원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2024년에 참가한 대회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면?**

밀양마라톤대회(13명), 서울동아마라톤(16명), 양산철인3종대회-올림픽코스(10명) 등 13개 대회에 우리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독일 로스대회-킹코스 대회에도 3명이 출전했는데, 이 대회는 각 지역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어야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대회라 출전 인원이 얼마나 많은 지가 클럽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클럽에서 3명이나 출전하게 된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Q. 클럽 회원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철인3종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극기의 종목이라 개인 훈련으로는 스스로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 클럽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기·수시 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다른 회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기량이 뛰어난 회원들에게 자극을 받으며 훈련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하루이를 쌓이면서 회원들의 실력도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Q. 우리 클럽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철인3종이 기록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덕분에 클럽 훈련도 서로 도우며 화목한 분위기고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클럽 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나 차량이 많은데, 그때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차량을 행사에 동원해 주시고 물품도 찬조해 주시는 덕분에 임원들이 클

럽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자랑거리는 회원들이 철인3종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매 훈련 매 대회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흘린 땀이 성취로 돌아오는 걸 볼 때면 늘 자랑스러운 감정이 차오릅니다.

**Q. 끝으로 철인3종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철인3종이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주가 불가능한 운동도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 마침내 해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어느새 한층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응원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Mini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서부산철인클럽의 12대 회장 강수미입니다.

우리 클럽은 2006년 초대 양재걸 회장님이 결성한 이래 19년간 불굴의 철인 정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클럽에 봉사하는 임원들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 덕분에 올해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 25년 차에 접어든 올해 뜻깊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클럽도 나날이 발전하여 20주년 30주년을 맞이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 모두 건강하고 오랫동안 함께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개최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명주연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10월 26일(토)~27일(일) 부산 동래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비롯한 9개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시체육회가 직접 주관한 테니스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대회에 특히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신인부, 남자오픈부, 개나리부, 국화부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남자부는 전국 대회 비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인부에 150팀 300명이 참가했으며 여자부는 전국 대회 비입상자가 참가하는 개나리부에 150팀 300명이, 개나리부 우승자를 대상으로 한 국화부에 64팀 128명이 참가해 응원단 포함 총 800여 명의 인파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회인 만큼 상금 또한 눈길을 끌었다. 개나리부와 전국신인부 우승팀은 120만원, 국화부와 오픈부 우승은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함께 수여됐다.

경기 시작에 앞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테니스 종목의 발전을 위해 올해 김해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대를 포함하여 부산 관내 테니스 종목 육성학교 9개 교에 운영지원금 총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대회는 다양한 연령대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경기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기량을 확인했고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응원석에서 보내는 열렬한 응원 속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특히 평소 가장 좋아하는 운동으로 테니스를 꼽은 박형준 부산시장도 참가해 참가자를 비롯한 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날 대회 전국 신인부에서는 부산 동호인 홍승완(하나클럽)·김해진(STC클럽) 조가 우승을 따냈고 여자 개나리부에서는 대구 동호인인 정은주(대구퀸)·주건영(파스텔) 조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우애를 돈독히 한 이번 대회를 통해 테니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대회를 개최한 부산시체육회와 대한테니스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의 매력을 발견하고 동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 가을에 '부산유남규탁구체육관'에서 탁구 어떠세요?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금광진

1980년대 탁구 전성기를 이끈 유남규, 현정화 등의 탁구선수들을 배출하고,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탁구도시 부산'에 있는 탁구 전용체육관인 부산유남규탁구체육관을 소개한다.



부산유남규탁구체육관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국립해양박물관 맞은편에 위치한다. 2015년 부산광역시와 유남규탁구재단, 부산광역시탁구협회 협약에 따라 건립이 추진된 탁구체육관은 2020년 2월 11일 개관하여 1980년대 대한민국 탁구 전성기를 이끈 유남규와 현정화, 안재형의 명성과 함께 부산의 탁구 요람 영도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체육관 입구에는 탁구채를 들고 있는 캐릭터 '온나'와 '아나' 모형을 만날 수 있어 방문객들의 인증사진 스팟으로 알려졌었다.

부산의 역량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투리를 이름으로 한 두 캐릭터는 사투리처럼 정감 가는 외형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탁구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못 어울린다.

지금도 다소 소강상태인 탁구계지만, 1980년대만해도 부산은 '탁구의 도시'로 불렸다. 대한민국을 탁구 강국으로 만들 도시가 부산이라는 말이 나올정도였으니 그 시절 탁구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체육관 1층에는 여러 대의 탁구 테이블이 놓여있는데, 그곳에는 낮시간대에도 탁구 연습을 하는 이용객을 만날 수 있다. 크고 작은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탁구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층 역시 넓고 쾌적한 시설이 완비되어 탁구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테이블을 오가는 작은 공에 속도가 붙으면서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랠리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탁구 관람의 재미일 것이다.

실내운동인 덕분에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탁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운동이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빠른 공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순간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만큼 두뇌회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요즘, 온 가족이 함께 탁구의 묘미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부산유남규탁구체육관은 언제나 생활체육 탁구인들을 기다린다.

## SEPAKTAKRAW

# 세팍타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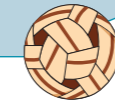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중 경합하는 선수들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문장이 있을까?

세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의 특색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스포츠 세팍타크로.

숨돌릴 틈 없는 경기 진행, 화려한 킥, 시원한 득점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역동적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자.

자료 출처: 대한세팍타크로협회



## 세팍타크로란?



코트에서 2~4명의 선수가 등나무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공으로 겨루는 스포츠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로가 종주국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이 각각 마인어 '세팍(Sepak, 차기)'과 태국어 '따끄로(ตะกร้อ, 공)'를 종목 이름으로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두 단어를 합성한 '세팍타크로'를 공식 명칭으로 삼아 국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기본적인 룰은 배구, 족구 등 네트를 사이에 두고 펼치는 구기종목과 유사하다. 단, 손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이 바운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용하는 공이 비교적 작고 타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족구와 달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입문자의 경우 상당한 기초 훈련을 거쳐야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다.

## 세팍타크로의 유래

### 국제식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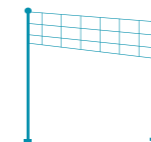
15세기경 동남아 궁정 경기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네트 없이 원안에서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받아내는지를 겨루는 경기였다.

그 후 규칙이 수차례 수정되며 1945년에 이르러 코트와 네트를 갖춘 오늘날의 경기 방식이 정립됐다. 1960-1965년에 각국의 상이한 경기방식을 동일한 경기 규칙으로 통일시켰고, 1965년에 아시아연맹이 결성되면서 동남아시아게임 종목으로 되어 세팍타크로는 동남아시아의 인기종목이 됐다.

### 한국식의 유래

1960년대 말경 월남전을 계기로 하여 동남아에 진출했던 군인, 기업인 등에 의하여 전파되었으며 흔히 '발배구'라고 불렸다. 1970-1980년대 공군 및 해군에서 성행하였으며, 코트는 지형 및 공간의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적용(해군: 미해군-함상, 한국해군-육상기지, 공군: 비행기지에서 성행)했고, 1970년대 이후 테니스가 전국에 흥행하면서부터 야외 테니스 코트를 주로 이용하게 됐다.

1975년 이후부터 1980년에 이르러 육·해·공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발전했으며 군, 기업체, 공공단체 등에서 상이한 규칙으로 진행됐다. 1990년 3월 30일 국내 최초로 본 협회에서 공식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경기 규칙 단일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1990년 5월 본회에서는 족구란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족구, 발배구, 한국식, 극동식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 세팍타크로 경기 규칙 및 규격

레구 룰(3인 1팀) 기준

### 선수 구성

- 테콩: 서브를 넣고 리시브를 받는 선수
- 피더: 공격을 위해 공을 배급해 주는 선수
- 킬러: 상대 코트로 공격하는 선수

### 특징

사용하는 공이 비교적 작고 타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족구와 달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입문자의 경우 상당한 기초 훈련을 거쳐야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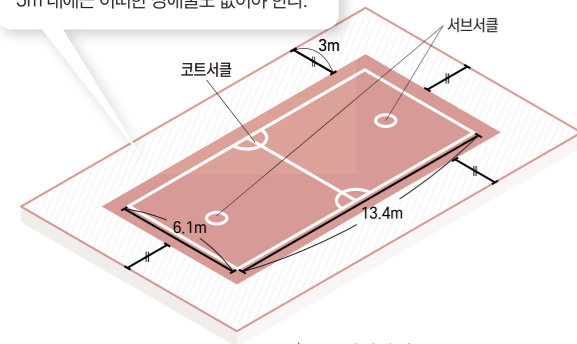
### 경기 룰

- 기본적인 룰은 배구, 족구 등 네트를 사이에 두고 펼치는 구기종목과 유사하다. 단, 손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이 바운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한 진영에서 최대 3회 볼을 터치할 수 있으며, 한 선수가 3회 전부를 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3회 이내에 상대 코트로 넘기지 못하거나 공이 바닥에 닿으면 실점한다.

### 경기장 규격

#### Free Zone / 자유구역

경기장 사이드라인, 베이스라인으로부터 3m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 13.4m x 6.1m
- 지면으로부터 높이 8m까지 장애물이 없어야 함
- 코드 경계선은 4cm 이하 폭으로 그리고 라인의 폭은 전체 너비에 포함
- 센터라인은 0.02m 폭으로 코드 중앙에 좌우 대칭으로 그림
- 포스트 높이: 남자경기 1.55m  
여자경기 1.45m

### 공 규격



- 합성고무 혹은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
- 공의 둘레와 무게

	공 둘레	공 무게
남자	0.41m~0.43m	170~180g
여자	0.42m~0.44m	150~160g

- 다양한 색의 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함

### 복장

양 팀 서로 다른 색상

## 부산의 세팍타크로



우리나라는 1998년, 세계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는메달 입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세팍타크로 선수단이다.

부산광역시 세팍타크로 선수단은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7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전국체전 7연패를 달성하기까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등의 다방면 지원도 있었다. 특히 협회는 세팍타크로의 발상지인 태국에 선수들을 보내 전지훈련을 하도록 했고, 전국체전 1개월 전에는 태국 선수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실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남/여),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남/여) 등 총 4팀이 있으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남/여)이 금메달을 2개 획득하여 종목 1위에 기여했다.

한편,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대표팀에는 부산 환경공단 남녀 선수 4명이 발탁되어 국위 선양에 앞장선 바 있다.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 '범죄와의 전쟁', '헤어질 결심', '올드보이' 등의 촬영지로 유명한 차이나타운

# 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 부산을 더욱 특별하게 즐긴다

'영화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 무비 투어를 진행한다. 시네마 투어 버스를 타고 부산 곳곳을 누비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자.

## 영화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부산이 단순히 아시아 최대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를 넘어 명실상부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오랜 역사와 탄탄한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다.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은 영화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1958년에는 국내 최초의 영화 평론가 집단인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창단되며 영화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했으며, 부산일보와 함께 한국 최초의 영화상인 부일영화상을 주도하며 한국 영화계 발전에 기여했다.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영화 촬영 지원기구인 부산영상위원회가 발족하며 영화 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을 찾는 영화인들에게 로케이션부터 후반 작업까지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촬영 장소 섭외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해 준다. 부산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영화 촬영을 돕는 것도 부산이 매력적인 영화 촬영지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다. 덕분에 부산에서는 매년 다수의 영화가 촬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총 118편의 작품이 부산에서 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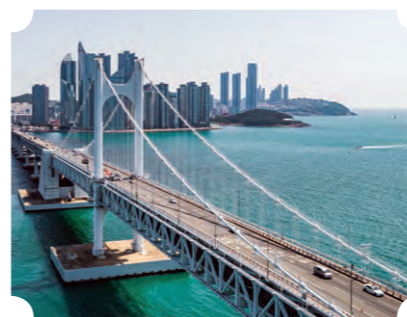
## 영화로 만나는 부산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영화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고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산 무비 투어를 진행한다. 부산 무비 투어는 시네마 투어 버스를 타고 영화 속 공간을 탐방하며, 해설과 음식 체험, 영화 포스터 콘셉트의 스냅 촬영과 인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투어다. 9월부터 11월까지 세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 A코스 '레트로 부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헤어질 결심', '올드보이' 등의 촬영지로 유명한 차이나타운을 거닐며 영화 속 장면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중식당 장성항에서는 '올드보이'의 오대수가 먹었던 군만두를 맛보고, '더킹'의 촬영지인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낡은 책의 향기와 함께 레트로 감성에 빠져볼 수 있다.



### B코스 '영화의 바다'는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 광안대교를 드라이브하며 다리 위에서 촬영한 영화에 대한 가이드의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코스다. 또, 영화 '해운대'의 배경이 된 미포와 달맞이에서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 C코스 '무비 나이트'는

영화 촬영지 중에서도 '야경 맛집'만 모은 코스다. 동백섬과 감천문화마을, 황령산 전망대 등 부산의 밤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장소에서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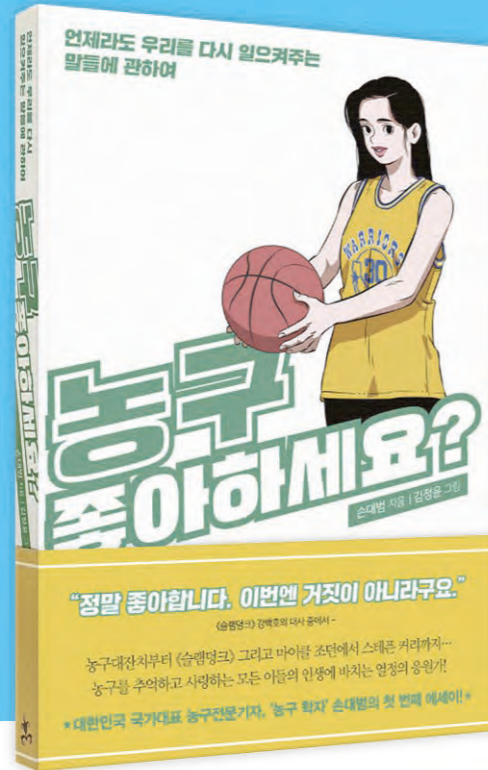


2024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 (출처: 비짓부산)

'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는 부산을 찾는 이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그 곳에 스민 영화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무비투어는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신청 및 문의는 카카오톡채널 '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pf.kakao.com/\_MxeQzn)'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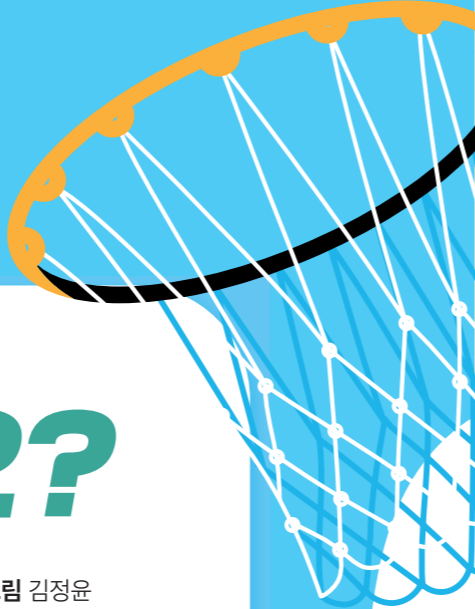


##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말



# 농구 좋아하세요?

저자 손대범 / 그림 김정윤  
출판사 쌤앤파커스



## 그런 시절이 있었다

“빅매치 티켓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고, 경기가 있기 전날 밤 커다란 하드보드에 응원 메시지를 적은 여학생들은 ‘오빠부대’ 집결지를 향해 아침 일찍 경기장으로 나섰다. 주간 연재되던 『슬램덩크』에서는 주인공 강백호가 모두를 놀라게 한 덩크슛을 마침내 터뜨렸고, NBA 결승전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우승 트로피를 꺼안은 채 눈물을 흘렸으며, 남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 10분을 허투루 보낼 새라 종이 울리자마자 농구공을 튀기며 운동장으로 달려 나갔다.”

책의 제목은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만화의 고전, 『슬램덩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대사에서 따왔다. 북산고 농구부 주장의 여동생 채소연이 강백호에게 건넨 “농구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 농구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가 결국 진정한 ‘바스켓볼 맨’으로 성장하며, 마지막 화에서 진심을 담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만화는 이러한 강백호의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농구 좋아하세요?』에는 『슬램덩크』속 불멸의 명장면, 명대사가 저자의 농구 인생과 교차되고 포개져 페이지마다 농구와 인생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채치수와 정대만이 흘린 눈물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서장훈이 흘린 눈물과 비운의 NBA 스타 데릭 로즈의 눈물이 교차하고, 송태섭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슛을 성공시키는 서태웅의 모습에서는 함께 빛나는 삶의 아름다움이 포개진다. 한편 맹목적인 정도로 농구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 강백호의 열정, 매 경기마다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백호군단’의

응원에서는 사그라진 열정과 떠나버린 팬들로 인해 어느새가 비인기 종목 취급을 받게 된 한국 농구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깊은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농구 붐’이 일었던 바로 그 시절 농구에 빠졌던 10대 소년이었다. 이 책은 오랜 농구 팬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농구 팬들에게 반가움과 환대의 마음을 한껏 담아 건네는 안부 인사와도 같다. 그런 까닭에 청춘을 다 바칠 만큼 농구를 좋아했고, 여전히 농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더 없이 반가운 선물이자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그러나 농구에 별 관심이 없어도, 농구 규칙이나 선수 이름을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구 좋아하세요?』는 “지금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나요?”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지금의 그 일을 좋아하고 있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열정을 좋아하고 있나요?”라는 질문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해준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구요.”

#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 부산시·경남도체육회 고향사랑 상호기부 동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4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경상남도체육회 고향사랑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기부 협약식에는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도 참석하여 그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두 체육회와 지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며, 오는 11일 개막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본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부산과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는 김해종합운동장에 제106회 전국체전 홍보 부스를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운영이익금 활용 테니스종목 전국 동호인 대회 개최 및 관내 테니스 육성 학교 운영지원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0월 26일(토)~27(일), 부산종합실내 테니스장을 비롯한 9개 테니스장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테니스장 수탁운영으로 발생한 운영이익금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테니스종목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이번 대회가 준비되었고, 테니스 동호회 일원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와 함께, 테니스장 운영이익금으로 부산 테니스종목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2024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부산 관내 테니스종목 육성학교 9개교에 운영지원금 총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달식은 전국 동호인 대회 개최식 행사에 앞서 진행되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수탁관리·운영함에 공공체육시설로서는 최초로 주말(금~일) 야간개장(익일 02시까지)을 시행하여 동호인들에게 보다 많은 운동기회를 제공, 무더운 여름시즌을 대비하고, 비산먼지 방지 효과를 위하여, 전국 테니스장 최초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동호인들의 운동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진흥 세미나」 성황리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5일(화)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 부산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대축전'을 주제로 「2024 부산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을 비롯하여 구군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체육회 실업팀 감독,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체육의 새로운 변화양상과 더불어 2025년 개최될 부산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발판으로, 향후 부산체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등 미래를 함께 그려 보는 소통의 장을 활짝 열었다.

좌장인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발표는 ▲박재성(영산대 레저스포츠관광학과 교수) 지역 스포츠축제로의 전환 ▲김대희(부경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박기홍(울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 부장)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체육의 발전과 향후 전략으로 진행한 뒤, 세미나 참석자들과 핵심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화합과 감동의 국민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전이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범시민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부산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며 “체육인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스포츠 활동이 단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함께 소통하는 체육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2024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친선골프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21일(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구군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간 소통을 도모하며 골프 동우회 활성화와 부산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회원단체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여 동우회원들과 동지애를 나눌 수 있었다.”면서 “부산체육 발전에 애쓰고

있는 분들과 교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시상은 1위, 2위, 3위, 행운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배 및 부상이 지급되었다. 1위는 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 2위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정수범 이사, 3위 부산광역시력비협회 성석동 회장이 입상했으며 행운상에는 부산광역시하키편회 김희준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회원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제21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 개최

10월 27일(일) 제21회 중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디지털고등학교 외 8개소에서 개최되었다. 총 10개 종목(검도, 게이트볼, 농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족구, 축구, 테니스, 어울림바둑) 1,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중구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장이 마련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서구체육회 서구체조팀, '2024 어르신 생활체육 전국체조 페스티벌' 참가

서구체조팀이 10월 19일(토)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24 어르신 생활체육 전국체조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전국 22개 팀이 참여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자웅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서구체조팀은 동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 동구체육회 동구청장배 체육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10월 27일(일)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동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공연과 박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야외배드민턴, 축구,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체조, 골프, 탁구,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파크골프, 족구 총 14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동구생활체육동호인 1,300여 명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은 실력을 뽐냄과 동시에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영도구체육회 2024년 제16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10월 19일(토) 마린축구장과 영도환경사업소축구장, 영도청학초내기 운동장에서 초등부 3개교, 중등부 6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제16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영도구청장, 영도구체육회장, 시의원, 영도구의장, 구의원, 체육회 부회장, 태종대중학교장이 참석했다.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은 참가 선수들에게 "우승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멋진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초등부는 중리초등학교, 중등부는 태종대중학교가 각각 우승기를 가져갔고 대평초등학교와 해동중학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 부산진구골드올림픽동경연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10월 25일(금) 부산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진구골드올림픽동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18팀이 라틴댄스, 생활체조 등 10개 분야에서 접전을 펼쳤다. 열띤 경쟁 끝에 부산여자대학교를 대표하는 '청춘회복'팀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참가한 18팀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 동래구체육회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생활체육 시범 공연 실시

10월 11일(금)~10월 13일(일)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개최되었다. 동래구체육회는 축제 기간 중 생활체육 시범 공연을 지원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 증진을 꾀했다. 댄스스포츠, 줄넘기, 체조, 태권도, 합기도 5개 협회가 참여하여 종목별 15분 남짓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 남구체육회 제42회 유엔남구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10월 26일(토) 14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제42회 유엔남구 오륙도사랑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택 남구청장, 정춘식 남구체육회장,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남구체육회 임원들도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도착지인 백운포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에서는 신나는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부상자 없이 대회는 성료했다.



### 북구체육회 2024년 북구청장기탁구대회 개최

북구체육회는 10월 27일(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2024 북구청장기체육대회' 개최식을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앞선 7월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무에타이, 족구, 줄넘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볼링 등 북구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해운대구체육회

### 해운대구 소속 전국체전 참가학교 격려금 전달식

해운대구체육회는 10월 21일(월) 사무국에서 해운대구 소속 전국체전 참가학교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 박영곤 해운대구체육회장은 “전국체전 출전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기량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격려사를 건넸다. 이날 신도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등 5개 단체 27명의 출전 선수들을 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선수·지도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단결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해운대구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금정구체육회

### 제10회 금정구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10월 25일(금), 수영강변 게이트볼장에서 '제10회 금정구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내빈 및 체육회 임원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10월 17일 취임한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격려하면서 지역 동호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금샘 2조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공덕산클럽이 준우승, 한신 2조와 금샘 3조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 사하구체육회

### 제8회 사하구청장배 구·군 초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10월 26일(토) 다대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에서 '제8회 사하구청장배 구·군 초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초청 경기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스포츠로 규칙이 어렵지 않아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스포츠이다.



## 강서구체육회

### 2024년 강서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10월 26일(토) '2024 강서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55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클럽 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강서구체육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체육활동 활성화, 구민 체력 증진, 건강한 여가생활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서구체육회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연제구체육회

### 2024년 연제구민 체육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10월 13일(일) 부산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12개 동 연제구민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남녀노소 참여가 가능한 원통 굴리기, 목표 달성 바스켓, 에어봉 릴레이 등 팀 대항 종목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800m 계주 등 대항 경기를 통해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에서는 거제3동이 종합우승, 연산 1동이 준우승, 거제2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 사상구체육회

###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2024년 10월 6일(일)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막을 올렸다. 사상구 선수단은 15개 종목에 출전해 소속 구·군의 자존심을 건 경합을 벌였다. 파크골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고 족구(준우승), 그라운드골프(3위), 배드민턴(3위), 태권도 겨루기(동), 품새(금1 동3) 종목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탄탄한 저력을 자랑했다. 더불어 선수단은 이번 대회 입상식에서 구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질서상 2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과 박대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수영구체육회

### 2024 수영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10월 20일(일) '2024 수영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족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총 8개 정회원단체 1,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내 어린이풋살장에서 열린 통합 개회식에는 모든 종목의 동호인들이 참석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기장군체육회

### 2024 기장군민걷기대회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10월 12일(토) 일광 드림볼파크에서 '2024 기장군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웃 상호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일광드림볼파크에서 출발해 월드컵리지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약 3.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기장군민 2,000여 명은 가족, 친지들과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7일 꿈나무체능단 27명과 단원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가족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원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회를 즐기면서 단체 게임을 통한 스포츠 정신과 협동심을 함양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결속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청명한 가을날 어린 시절 운동회를 회상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노고를 씻어내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꿈나무체능단 가을 운동회

##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에는 10월부터 6~7세 유아들을 위한 수영 수업을 개강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번 수업은 주 2회 실시되며, 12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수영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아이의 근육이나 관절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평형감각이나 신체 협응력, 순발력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폐활량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도 길러준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물놀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영도국민체육센터 유아수영 프로그램 개강

##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고생한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30% 할인받는다. 이번 이벤트는 2025년 2월 28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할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문의로는 북구국민체육센터(051-365-7070)로 하면 된다.

2025학년도 대입 수험생 30%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운영기간**

- 이벤트 기간 : 2024. 11. 14. (목)부터 ~ 2025. 02. 28. (금)
- 대 상 : 2025학년도 대입수험생
- 프로그램 : 북구국민체육센터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할 인 율 : 30%할인(중복할인 불가)

수험생 할인!!

**수험표 제출 시 할인이 적용 됩니다.**

## 부산실내빙상장

제13회 부산시장배 전국 아이스하키리그가 2024년 10월 3일(목)~10월 6일(일) 4일간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열렸다. 부산, 서울을 비롯하여 12개 지역에서 초등부 20개 팀, 중등부 5개 팀이 참가하여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제13회 부산시장배 전국 아이스하키리그 개최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지난 10월 16일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0여 명의 선수단과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제26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배드민턴 경기가 개최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심신 재활과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제26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10월 6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 40~60대 테니스 동호인 19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치며 테니스 동호인들 간 화합의 장을 열었다.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35년째 개최되는 부산시 구·군 대항전으로 테니스 동호인에게는 구·군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다.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 제43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주조 배 축구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축구협회와 대선주조(주)가 주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주)스포츠라이브, (주)HDC스포츠에서 후원하는 '제43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주조 배 축구대회'가 기장월드컵빌리지 외 2곳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부산시축구협회장기는 1981년 처음 개최돼 43년째 지역 생활체육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63개 팀 1,400여 명이 참가, 연령대별 5개 부(청년부, 장년부, 노장부, 실버부, 황금부) 63개 팀이 접전을 벌였다.

열띤 승부 끝에 청년부 A조 강서구, B조 동래구, 실버부 A조 북구, B조 강서구, 황금부 A조 연제구, B조 부산진구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니스 종목 남자 일반부 개인 복식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김만열, 이도근 선수가 39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당초 목표는 동메달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선수들의 투지와 현장 분위기에 힘입어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결과를 통해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의 우영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소프트테니스인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에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관계자는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 대한테니스협회 디비전리그 T7리그 부산대표 선발전 개최



10월 20일(일) 대한테니스협회 디비전리그 T7리그 부산대표 선발전이 개최되었다.

강서구A, 강서구B, 북구, 해운대구, 영도구, 기장군, 남구 총 7팀이 구·군 대표로 출전하여 풀리그 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하였고 T7리그 부산대표 선발전 상위 3팀(1위 남구 이기대클럽, 2위 강서A 덕두클럽, 3위 북구 위켄드클럽)은 대한테니스협회 디비전리그 챔피언십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의 팀들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아이스하키팀, '제7회 경남협회장배 전국 아이스하키팀' 참가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아이스하키팀이 10월 17일~20일 창원 성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회 경남협회장배 전국 아이스하키팀'에 참가하였다.

U8 창원데빌스, 루비덕스, 광주아이기스, 스카이어글스와 경기를 펼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팀은 이번 대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팀 관계자는 "우리 팀이 첫 전국대회 출전한 것인 만큼 성적을 못 낸 것에 아쉬워하지 않고 지속적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아 팀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www.busanaircruise.co.kr

##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불수룩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통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래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만공원 일동미래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래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래주



신장유 일동미래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래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래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래주 더스타



부산 영도 일동미래주



울산오양 일동미래주



울산 해곡중산자구 U-스타시티 일동미래주 더스타

2007년  
대통령 표창 수상

2010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  
부산문화대상  
경영부문 수상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레스트 제공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E&S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 하안지붕 설치 지원사업 (2023)

#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이 광고는 생성형 시로 제작되었습니다]